

‘비트코인은 핫한 속태풍인가, 거대한 허리케인가?’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비롯한 가상화폐가 무술년(戊戌年) 새해 벽두부터 다시 초미의 관심사다. 컴퓨터 네트워크속 무형(無形)의 화폐를 사들이는 큰돈을 번 벼락부자들을 둘러싼 풍문이 빠른 속도로 퍼지면서 한국 사회는 온통 가상화폐 흥역을 앓고 있다. 마치, 지난 1930년대 금을 찾아 전국을 떠돌던 식민지 조선인들의 ‘황금광 열풍’을 떠올리게 한다는 평가다. 비트코인에 치우친 투자 대상도 여타 가상 화폐로 점차 확대되는 모양새다. 러시아계 캐나다인 프로그래머 비탈릭 부테린의 개발한 이더리움에서 리플, 라이트코인, 모네로, 대시, 쉐링, 이오스, 비트코인 골드 등을 비롯한 알트코인(비트코인을 제외한 가상화폐)이 그 대상이다. 한국은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에서 가상화폐 거래가 3번째로 많은 국가의 반열에 올랐다.

비트코인 투자가 이상 과열을 빚자 한국 정부는 급기야 칼을 빼들었다. 박상기 법무장관은 지난 11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갖고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한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고, 거래소 폐쇄까지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가상화폐는 어떤 가치에 기반을 둔 거래 대상이 아니다”라며 “버블이 붕괴됐을 때 개인이 입을 손해가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한국, 미국, 일본 등지의 가상화폐 투자 붐은 두 가지 점에서 역사상 유례가 없다는 평가다. 민간의 ‘사실 화폐’가 중앙은행이 발행한 불태환 법정통화(fiat money: 교환이 보증되지 않은 통화)를 대신해 시중의 돈을 빨아들이고 있으며, 투자 대상 또한 컴퓨터 네트워크에만 존재하는 등 형태가 없기 때문이다. 그 가치 또한 무침은 있어도 2009년 첫 출시 후 꾸준히 오르고 있어 이채를 띤다.

가상 화폐의 특성은 주객이 전도된 세계를 보여준다. 지난 2008년 9월 미국의 투자은행인 리먼브러더스에서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가 그 시발점이다. 위기 진화의 소방수로 나선 주요국 중앙은행이 양적 완화 라는 이름으로 화폐 발행을 남발하며 신뢰를 잃자, 그 빈자리를 민간의 가상 화폐가 파고 들고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한국의 가상화폐 붐은 미국이나, 일본 등에 비해 유독 기형적 이라는 평가다.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는 초연결 사회 에서 금융을 비롯한 산업 부문을 재편하거나 그 생태계를 살찌울 ‘파괴적 혁신’의 가능성을 둘러싼 논의가 실종됐기 때문이다. 세상을 바꿀 잠재력이 풍부한 이 화폐를 민간에서는 재테크 수단, 관에서는 규제 대상으로만 바라보고 있다는 뜻이다. 전국민적인 ‘부자 되세요’ 열풍에 다시 불씨를 점화한 이 암호 화폐 신드롬이 언제까지 지속가능할 지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하지만 이 화폐가 팍팍한 삶에 지친 ‘갑남을녀’를 부(富)의 신세계로 인도할 ‘희망의 막자’ 역할을 할지, 아니면 곧 사라질 ‘신기루’에 불과한 지는 결국 이 기술을 바라보는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논의 수준에 달려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 “모든 이노베이션, 초기에 진통...더 좋은 가상화폐 등장”

최공필(60) 한국 금융연구원 미래연구센터장은 4일 “초연결 세상에서 돈의 모습은 어때야 하는 지에 대한 답이 바로 비트코인”이라 하며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는 달라진 시대정신을 반영한다고 강조했다.

최공필 박사는 이날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 있는 사무실에서 가진 뉴스와 인터뷰에서 “모든 것이 스마트폰을 매개로 하나로 연결되는 초연결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면서 이같이 진단했다. 그는 “비트코인은 크립토크런시(암호화폐)의 완결판이 아니다”라며 “앞으로 더 좋은 가상화폐가 많이 나올 것”이라고 가상화폐의 미래를 낙관했다.

최 박사는 또 가상화폐 거래소 규제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거래소는 법정화폐가 돌아다니는 세상과 가상화폐가 돌아다니는 세상을 연결해주는 인터페이스”라며 “적절한 규제가 (더 일찍) 이뤄져야 했다”며 금융당국의 느장 대응을 꼬집었다. 그는 “대한민국은 직무를 유기한 채 문제가 터진 뒤 호들갑을 떨어왔다. 이제 좀 성숙한 모습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최 박사와 일문일답.

## [비트코인의 미래②]

금융연구원 미래연구센터장 최공필 박사

“초연결 세상 돈의 모습 대답 ‘비트코인’”

“적절한 규제 더 일찍 이뤄졌어야” 꼬집어

▶민간이 만든 사실화폐(가상화폐)가 인류역사상 지금까지 빠르고, 광범위하게 확산된 전례가 있는가.

“사상 초유의 일이다. 그래서 세상이 바뀌었다는 거다. (가상화폐가 제기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국가적 장벽이 도전받고 있다는 점이다. 세상은 여전히 국가적 지배 구조로 돌아가고 있다. 이 기술이 (이러한 상황에서) 나타났다. 국가적 장벽에 구애받지 않는 특성이 있다. 세상은 많이 바뀌었는데, 이것을 규율하거나 결정하는 지배구조는 과거의 분열된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비트코인은 혹시 신기루가 아닐까. 세상을 가득 채웠다가 해가 떠오르면 사라지는 허무한 안개 같은 거 말이다.

“동의하기 어렵다. 모든 것이 스마트폰을 매개로 하나로 연결되는 초연결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 돈의 모습은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돼야 할까. 이런 물음에 대한 답이 바로 비트코인이다. 비트코인은 크립토크런시(암호화폐)의 완결판이 아니다. 앞으로 더 좋은 가상화폐가 많이 나올 것이

다. 이미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을 기술적으로 보완한 크립토크들이 나왔다. 앞으로 도 나올 것이다. 제트 코인도 괜찮은 거 같다. 이런 흐름을 계속해서 진화의 관점에서 들여다 봐야한다.”

▶17세기 네덜란드 사람들이 앞 다퉈 사들인 튜립 구근은 실체가 있었다. 하지만 가상화폐는 알파벳과 숫자로 된 암호에 불과하다.

“가상화폐는 곧 어드레스(주소)다. 돈이 A에서 B로 가는데 실제로는 (실물이) 움직이지 않는다. 장부에서 그냥 변하는 것이다. 이 거래 기록을 제3의 신뢰 주체가 아니라 네트워크에 연결된 노드들이 검증한다. 얼마나 멋진 세상인가. 가상화폐는 달라진 세상에 적합한 화폐다. 이게 바로 보이지 않는 화폐다.”

▶비트코인이 작년 3월2일 금값을 앞지르더니, 이제는 이 안전자산과 열배 이상 가격차를 벌렸다. 버블이 심각한 건 아닐까.

“현재로서는 (가상화폐의) 벨류에이션(가치평가)이 언제든지 비쌀 수 있다고 생

각한다.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다. 미래에 대한 기대와 더불어 우려도 존재한다. 계속해서 (벨류에이션이) 열치랴워지랴 할 수밖에 없다. 이게(가상화폐) 어느 정도 정착하려면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실험을 해야 한다.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할 정도로 많은 그것(실험)이 있어야 한다.”

▶초연결 환경이라는 건 또 뭐가. 스마트폰으로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는 세상을 뜻하는 건가.

“연결이 (요즘 세상을 보여주는) 핵심 단어다. 연결이 가져오는 이러한 변화를 우리는 지금 조금씩 깨닫고 있다. 세상이 하나로 연결됐기 때문에 플랫폼 기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협업의 가치도 커진 것이다. 이제는 그 가치를 특정 기업이 만드는 게 아니다. 모두가 협업을 해서 가치를 만들어 내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 은행 지주사처럼 모든 것을 한 우산 아래 다 하겠다는 건 바보 같은 행동이다. 화폐도 그렇다. 법정 화폐만으로는 불편하다. (가상화폐가) 이렇게 빛의 속도로 왔다 갔다 하지 않나.”

▶정부가 뒤늦게 가상화폐 거래소 규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세원 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아니면 가상화폐를 때려잡기 위한 것인가.

“(가상화폐) 거래소는 법정화폐가 돌아다니는 세상과 가상화폐가 돌아다니는 세상을 연결해주는 인터페이스다. 적절한 규제가 (더 일찍) 이뤄져야 했다. 법정화폐 자신이 가상화폐 표시 자산으로 변할 때 국가로서는 세원을 뺏길 수 있는 소지가 있다. 비트코인으로 변하면 추적이 불가능하



한국금융연구원 최공필 박사가 4일 서울 중구 한국금융연구원에서 인터뷰 하고 있다.

다. 물론 어드레스로 뒤쫓을 수는 있지만, 세금 낼 수 있는 기반이 바깥으로 나간다는 점에서 관리해야 한다. 가상화폐는 외환에 준하는 화폐로 봐야 한다. 글로벌하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외환 거래법이 있다. 법정화폐를 달러로 바꿀 때는 신고를 해야한다. 법정화폐가 가상화폐로 전환되는 데 대해 아무런 규제도 안했다는 건 문제다.”

▶가상화폐 거래소는 민간 분야다. 무슨 근거로 그 거래 내역을 정부가 일일이 보고 하는 지 묻는 목소리도 나온다.

“물론 거래소가 국가에서 라이선스를 얻어서 영업을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국가는 당연히 권리를 보유한다. 세금을 걷는 입장에서 국가의 부가 다른 형태로 새 나가는 부분을 추적할 수 있다. 실제로 뉴욕법원에서 그렇게 판결이 났다. 그것은 법적인 근거나 토대가 있다. 그게 안 되면 누군가 재산을 다 털어서 크립토로 바꿔 놓으면 어떻게 세금을 매기나. 누구는 여기서 꼬박꼬박 세금내고 누구는 세금 하나도 안내고 돌아다니면서 즐기는 건 말이 안 된다.”

▶가상화폐가 법정통화와 공존할 수 있다고 본다. 냉혹한 국제금융계의 질서를 모른다면 회의적 목소리를 내는 금융전문가들이 적지 않다.

“가상화폐는 법정 화폐가 충족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생긴 것이다.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같이 가는 게 맞다고 본다. (그런 목소리를 내는) 금융전문가들도 기록권의 일부라고 본다.”

▶가상화폐가 기록통화의 자리를 대체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비트코인은) 기록통화로서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글로벌 커런시의 핵심은 국가에서 부채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점이다. 트리핀 달레마라는 불가피한 제약이 따른다. 미국의 재정적자가 커지면, 달러 신뢰도는 떨어진다. 글로벌 유통성 공급 차원에서 달러의 위상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근본적으로 글로벌 머니로서는 한계가 있다. 대안이 없으니 쓰는 거다. 하지만 비트코인도 (발행이 2100만개로 정해진) 디플레 커런시라는 한계가 있다.”

# 세계인의 밥상 이제부터 한식입니다

세계적인 인류의 열풍은 우리 것에 대한 자부심과 이에 따른 한식의 위상을 높여 놓았습니다. 한식의 세계화는 품격높은 한식문화의 조성과 우리음식의 사랑에서 시작합니다. 우리 스스로 한식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올바른 식문화의 정립과 한식의 표준화가 이루어질 때, 진정한 한식의 세계화는 이루어 집니다.

